

# 한-케냐 인프라협력센터

##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6월 4주~7월 1주)

### □ 정책 및 시장 동향

#### ① 케냐 주요 경제 동향

##### ○ 주요 경제 지표

	해당년/월/주/일	전년/월/주/일	참고시점
환율(1USD)	129	129	2025.6월
인플레이션(%)	3.8	4.1	2025.5월
CPI(points)	145	144	2025.5월
정부부채비율(% of GDP)	65.5	72	2024.12월

출처:trading economics

##### ○ 유로본드 이자지급액 1,150억 KES 증가<sup>1)</sup>

- 글로벌 금리 인상과 환율 하락 압력으로 인해 케냐의 유로본드 이자 지급액이 1,150억 KES 증가함.
- 부채 상환 비용이 증가함으로 인해 외채 상환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케냐의 재정 여건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이는 글로벌 금융 여건이 긴축되면서 케냐의 달러 표시 국채 수익률 상승을 반영함.
- 재무부는 부채 지속 가능성과 예산 수요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다 어려운 차환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음.

##### ○ 경상수지 적자, GDP 대비 1.8%로 축소<sup>2)</sup>

- 2025년 4월까지 1년간 케냐의 경상수지 적자가 전년 2.2%에서 1.8%(GDP 대비)로 축소되었으며, 이는 원예·커피 수출 호조와 12.1%에 달하는 재외송금 증가에 따른 것임.
- 수출 실적 개선과 송금 증가로 약 21억 달러의 국제수지 흑자가

1)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markets/capital-markets/interest-paid-on-eurobonds-rises-by-sh11-5-billion-5080840>

2)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economy/current-account-deficit-narrows-to-1-8pc-of-gdp-5084070>

발생했으며, 외환보유액은 약 11억 달러 증가함.

- 경상수지 적자 축소는 대외 부문 안정성과 경제 회복력 개선을 반영하나, 여전히 적자가 존재하는 만큼 지속적인 자본 유입이 필요함.
- 케냐 중앙은행은 관세 인하와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에 따라, 올해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약 1.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함.

#### ○ 2025/26 회계연도 예산 4조 2,900억 KES, 이렇게 사용된다<sup>3)</sup>

- 케냐 재무부는 2025/2026 회계연도 예산으로 4조 2,900억 KES을 편성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경제 회복 촉진과 ‘보통업 경제 전환 아젠다(BETA)’와의 정렬에 중점을 둬.
- 주요 배정 내역은 교육 부문에 6,584억 KES, 지방정부 균등 배분금으로 4,051억 KES, 보건 부문에 1,334억 KES, 주요 인프라에 3,181억 KES, 국가 안보에 4,649억 KES임.
- 농업 부문에는 476억 KES, 주거 및 도시 개발 부문에는 1,202억 KES가 배정되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은 ‘서민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짐.
-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에 127억 KES, 환경 부문에 1,038억 KES, 사회보호 및 형평성 증진에 413억 KES가 각각 배정됨.
- 이번 예산 배정은 빈곤 해소, 공공서비스 전달 향상, 산업 및 기술 발전 촉진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반영함.

#### ○ 케냐, AfDB 사업 자금 수혜국 4위로 상승<sup>4)</sup>

- 케냐는 2024년 인프라 및 기후 관련 프로젝트를 위해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으로부터 12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하며 AfDB 자금 수령 규모 기준 아프리카 4위로 상승함.
- 주요 지원 사업에는 도로, 수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포함되며, 이는 경제 성장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를 촉진함.
- 이번 지원 확대는 케냐의 향상된 사업 집행 능력을 반영하며, AfDB는 케

3) <https://businesstoday.co.ke/how-govt-will-spend-ksh4-29-trillion-budget/>

4)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economy/kenya-climbs-to-fourth-biggest-recipient-of-afdb-project-funds-5086562>

나의 사업 추진 속도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빠르다고 평가함.

- 전체 자금의 40%는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지속 가능 개발 프로젝트에 배정되어 있음.

#### ○ 케냐 재정적자, 세수 부족 지속 속 KES 7,977억 도달<sup>5)</sup>

- 2025년 4월 기준, 케냐의 재정적자는 KES 7,977억에 달하며 GDP의 4.6%를 기록함. 이는 지속적인 세수 부족에 기인한 것.
- 해당 재정적자는 KES 4,418억의 순 해외 차입과 KES 3,559억의 순 국내 차입을 통해 충당됨.
- 세수는 목표 대비 KES 2,530억 부족했으며, 이 중 일반 세입이 KES 1,953억, 자체수입(A-in-A)은 KES 577억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개발지출과 카운티 정부로의 이전 지출은 목표치를 하회했지만, 이자 지출과 행정 운영비 증가로 인해 경상 지출은 예상치를 초과했음.

#### ○ 정부, 주택 사업 추진 위해 KES 1,290억 추가 차입 추진<sup>6)</sup>

- 케냐 정부는 루토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인 보급형 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KES 1,290억 규모의 추가 차입을 계획하고 있음.
- 이번 차입은 논란이 된 주택세(housing levy)를 포함한 기존 주택 정책을 보완해, 연간 25만 가구 건설 목표를 앞당기기 위한 것임.
- 자금은 사회주택(social housing) 및 주택담보대출(mortgage) 금융 지원에 사용되며, 200만 가구 이상 부족한 나이로비의 주택난 해소를 목표로 함.
- 반대 측은 케냐의 전체 부채가 11조 KES에 근접함에 따라 공공부채 증가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고 있으나, 반면 지지자들은 이번 투자를 통해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이 촉진될 것이라고 주장함.

#### ○ 재무부, 세수 부족 및 부채 압력으로 도로 예산 KES 110억 삭감<sup>7)</sup>

5) <https://www.capitalfm.co.ke/business/2025/06/kenyas-budget-deficit-hits-sh797-7bn-as-revenue-shortfalls-persist/>

6)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economy/state-eyes-extra-sh129bn-debt-for-housing-projects-5092866>

7)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economy/treasury-cuts-roads-budget-by-sh11bn-5088240>

- 재무부는 세수 부족과 부채 부담을 이유로 2023/24 회계연도 수정 예산안에서 도로 부문 예산을 KES 110억 삭감함.
- 삭감 대상에는 주요 고속도로 및 농촌도로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완공 일정 지연 및 유지보수 차질이 우려됨.
- 이번 감축은 세금 징수 감소와 IMF의 긴축재정 권고에 따른 조치로, 재정 적자 억제를 위한 대응임.
- 이해관계자들은 인프라 지출 축소가 운송, 무역, 고용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 ○ 14개 정부 부처·기관, 11개월간 사업 예산 집행 전무<sup>8)</sup>

- 케냐의 14개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이 예산 승인에도 불구하고 지난 11개월간 배정된 개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수십억 실링 규모의 미집행 예산은 주요 프로젝트 지연과 공공서비스 제공 차질로 이어지며 행정 비효율에 대한 우려가 커짐.
- 재무부는 주요 원인으로 관료적 절차 지연과 조달 과정의 병목현상을 지목함.
- 예산 집행 부진으로 인해 핵심 인프라 및 사회 프로그램이 차질을 빚으면서, 책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② PPP 관련 동향

#### ○ 시아야(Siaya), 케냐 첫 원자력 발전소 부지로 선정<sup>9)</sup>

- 케냐는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아야 카운티(Siaya County)에 첫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임.
- 총 투자 규모는 약 3,050억~5,000억 KES으로, 7년에 걸쳐 진행되며 2032년 가동을 목표로 함.
- 해당 발전소는 미국, 중국, 그리고 잠재적으로 한국과의 국제 협정에 기반한 민관협력(PPP) 방식으로 개발될 예정.
- 건설 기간 동안 1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며,

8) <https://nation.africa/kenya/business/14-state-departments-agencies-fail-to-spend-on-projects-over-11-months-5093958#story>

9) <https://www.the-star.co.ke/news/2025-06-16-siaya-tapped-for-first-nuclear-power-plant>

지역 교육기관들이 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재무부, 탈란타 스타디움 440억 KES 채권 보증 거부<sup>10)</sup>

- 재무부는 재정 제약과 부채 부담을 이유로, 탈란타 스포츠 시티 스타디움 건설을 위한 440억 KES 규모의 채권 보증을 거부함.
- 이에 따라, AFCON 2027 주요 사업인 6만 석 규모의 스타디움은 정부 지원 없이 민간 컨소시엄이 대체 재원을 확보해야 함.
- 자금 조달이 지연되면 건설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어 AFCON 2027 준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정부가 대형 민관협력(PPP) 인프라 사업에 대한 지원을 철회함에 따라, 투자자의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 켄젠, 발전소 컨설팅 입찰 취소 후 재공고...PPARB 결정 반영<sup>11)</sup>

- 켄젠(KenGen)은 발전소 컨설팅 업무에 대한 입찰을 조기 종료한 후 공공조달행정심의위원회(PPARB)의 심사 강화로 인해 해당 입찰을 취소함.
- PPARB는 켄젠이 입찰 중단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경쟁 입찰안들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함.
- 이에 따라 켄젠은 해당 입찰을 공식적으로 재공고하고, 입찰 유효기간을 2025년 7월 27일까지 한 달 연장함.
- 이번 결정은 전문 컨설팅 서비스 조달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절차상 문제를 보여주며, 공공 유틸리티 계약 관리의 명확성 확보의 필요성을 시사함.

○ 모리셔스, 전력 수요 충족 위한 부유식 발전소 사업에 해외 투자자 유치<sup>12)</sup>

- 모리셔스는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부유식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할 국제 투자자들을 초청하는 입찰 공고를 발표함.
- 중유(heavy fuel oil)를 연료로 사용할 이 발전소는 내년 1월까지

10)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markets/capital-markets/treasury-not-backing-sh44bn-bond-for-talanta-stadium-5083654>

11)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economy/-kengen-cancels-reopens-tender-for-power-plant-consultancy-work-5091254>

12)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limate-energy/mauritius-seeks-investors-floating-power-plant-meet-energy-demand-2025-06-24/>

100메가와트의 추가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됨.

- 이 부유식 바지는 포르투이스 앞바다에 정박하며, 5년 계약에 따라 국가 전력망에 연결될 예정.
- 본 프로젝트는 모리셔스의 에너지원 다변화와 공급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현재 모리셔스는 전체 에너지 수요의 약 80%를 화석 연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③ 인프라 정책 및 동향

○ Lake Turkana 풍력발전소, 2024년 국가 전력망에 1,367GWh 공급<sup>13)</sup>

- Lake Turkana 풍력발전소(LTWP)는 2024년 한 해 동안 케냐 국가 전력망에 총 1,367기가와트시(GWh)를 공급하였으며, 이는 국가 전체 전력 생산의 약 11%를 차지함.
- 이 전력 생산량은 57만 4천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며, 케냐의 기후변화 대응 및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줌.
- LTWP는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풍력발전소로, 청정에너지 및 사회경제적 발전에 있어 민관협력(PPP)의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사례임.
- 본 발전소는 지열, 수력, 태양광, 바이오에너지를 포함한 케냐의 광범위한 녹색에너지 전략의 일환.

○ 루토 대통령, 비판 속에서도 ‘서민 주택 공급 사업’ 지속 의지 재확인<sup>14)</sup>

- 윌리엄 루토 대통령은 지속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서민 주택 공급 사업(Affordable Housing Programme)’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해당 사업이 저소득층의 삶을 개선하고 케냐의 도시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함.
- 나이바샤에서 열린 제2차 케냐 도시포럼(Second Kenya Urban Forum)에서 루토 대통령은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보다 장기적 개발의 중요성을 역설함.
- 루토 대통령은 일부 정치 지도자들이 지속 가능한 정책 이행보다

13) <https://www.capitalfm.co.ke/business/2025/06/lake-turkana-wind-power-injects-1367-gwh-into-national-grid/>

14) <https://www.capitalfm.co.ke/business/2025/06/ruto-reaffirms-commitment-to-affordable-housing-amid-criticism/>

선거 주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함.

- 이번 포럼은 도시 계획 관계자들이 모여 포용적 도시 개발, 지속가능한 주택 공급, 비공식 정착지 문제 해결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는 여전히 정부 주택 정책의 핵심 과제로 남아 있음.

#### ○ 케냐, 말라바까지 SGR 연장을 위한 판다본드 발행 추진<sup>15)</sup>

- 케냐는 나이바샤에서 우간다 접경지역인 말라바까지 표준궤 철도 (SGR) 연장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중국 금융시장에서 첫 판다본드(Panda Bond)를 발행할 계획임.
- 이번 계획은 총 475km에 달하는 철도 구간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자금 부족으로 지연된 SGR 확장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됨.
- 본 프로젝트는 물류비 절감, 역내 무역 경쟁력 강화, 그리고 몸바사 (Mombasa)의 동·중앙아프리카 주요 물류 허브로서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다.
- 해당 국채 발행은 공공재무국장의 확인에 따른 것으로, 루토 대통령의 중국 순방 중 체결된 협정을 기반으로 외부 자원 조달 경로의 다변화를 추진하는 전략의 일환.

#### ○ 르완다, 부게세라 공항 개발에 4억 9,900만 달러 추가 투입<sup>16)</sup>

- 르완다 내각은 부게세라 국제공항(Bugesera International Airport)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가 예산에 6,990억 RWF (약 4억 9,900만 달러)를 추가 편성함.
- 이 공항은 수도 키갈리 남쪽에 위치하며, 기존 국제공항을 보완하는 동시에 키갈리를 아디스아바바와 함께 주요 지역 허브로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계획됨.
- 이번 추가 재정 투입은 수백만 명의 여객과 대규모 화물 운송을 처리할 수 있는 메가 공항 단지를 완공하겠다는 키갈리 정부의 전략을 반영함.

15) <https://www.theeastafrican.co.ke/tea/business-tech/kenya-banks-on-panda-bond-to-fund-sgr-to-malaba-5080926>

16) <https://www.theeastafrican.co.ke/tea/business-tech/budget-rwanda-allocates-499m-to-bugesera-airport-5079580>

- 이번 투자는 르완다의 연결성, 역량, 그리고 동아프리카 항공 허브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중요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임.

○ KenGen, 63MW 추가 전력 국가 전력망에 연결 예정<sup>17)</sup>

- KenGen은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올카리아 I(Olkaria I) 지열 발전소 개보수를 통해, 2026년 6월까지 63메가와트(MW)의 재생에너지를 케냐 국가 전력망에 추가로 공급할 계획임.
- 2호기와 3호기에 필요한 핵심 부품인 증기 터빈 및 발전기가 일본에서 도착함에 따라, 사업이 중요한 진척을 보이고 있음.
- 올카리아 I 업그레이드는 203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 달성을 목표로 하는 케냐의 에너지 전략의 일환이며, 현재 지열발전은 케냐 전체 일일 전력 소비의 42% 이상을 담당하고 있음.
- 지열에너지는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케냐의 장기적인 에너지 회복력 확보와 동아프리카 전력망(Eastern Africa Power Pool)을 통한 역내 수출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음.

○ 이스라엘-이란 전쟁, 케냐 G2G 연료 수입 계약 시험대에 올라<sup>18)</sup>

-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인해 케냐가 사우디 아람코(Saudi Aramco), 아부다비 ADNOC, 두바이 ENOC와 체결한 정부 간 연료 수입(G-to-G) 계약이 위협에 처함. 군사 공격과 해상 긴장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주요 운송 경로가 위협받고 있음.
- 초대형 유조선(VLCC)의 운임이 약 60% 가까이 상승함에 따라, 증가한 물류 비용을 케냐 공급업체가 감당할 것인지, 걸프 국가 기업들이 감당할 것인지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
- 브렌트유 가격은 약 12% 급등하며 한때 배럴당 78달러를 돌파함에 따라 국내 연료 가격 인상 및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전문가들은 이번 분쟁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과 해상 운송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국내 물가 상승과 통화 정책 운용에 어려

17) [https://www.standardmedia.co.ke/national/article/200152079/ken-gen-to-tap-an-additional-63mw-of-electricity-into-the-national-grid#google\\_vignette](https://www.standardmedia.co.ke/national/article/200152079/ken-gen-to-tap-an-additional-63mw-of-electricity-into-the-national-grid#google_vignette)

18)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economy/israel-iran-war-puts-kenya-g-to-g-fuel-deal-to-the-test-5085692>

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함.

○ 공공계약 ‘밀실입찰’ 시대 종식… 전면 온라인화로 전환<sup>19)</sup>

- 케냐 정부는 모든 공공계약 입찰을 전자조달(e-procurement) 플랫폼을 통해 처리하는 전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며, 불투명한 수기 입찰 절차를 공식적으로 종료함.
- 이제 모든 정부 기관은 입찰 공고 및 계약 수주 결과를 온라인에 공개해야 하며, 이는 「공공조달법」에 따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임.
- 실시간 계약 추적과 입찰 절차 전반에 대한 감사기록(audit trail)을 통한 부패 방지를 목표로 함.
- 전국의 공급업체들이 동등하게 공공 입찰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특혜 관행이 줄고 중소기업(SME)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 KURA, KES 76억 규모 아우터링 BRT 사업 계약자 선정 승인 획득<sup>20)</sup>

- KURA(케냐 도시도로청)는 KES 76억 규모의 아우터링로드 BRT(Bus Rapid Transit) 사업 추진을 위한 시공업체 선정에 대해 정부 승인을 받음. 이는 나이로비 대중교통 개선의 핵심 이정표로 평가됨.
- 본 사업은 나이로비 동부지역의 혼잡 완화와 통근 이동성 향상을 위해 아우터링로드 구간에 전용 버스 차선을 도입할 예정.
- 시공은 2026년 초 시작되어, 계약자 선정이 완료되면 2년 내 완공을 목표로 함.
- 해당 BRT 노선은 향후 구축될 나이로비 BRT 네트워크 및 기존 마타투(matatu) 정류장과 연계될 예정.

○ 케냐, 중국 팬더본드 추진…우간다 SGR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 중<sup>21)</sup>

- 우간다의 표준궤 철도(SGR)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 10월 터키의 야피 메르케지(Yapi Merkezi)와 체결한 27억 유

19)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economy/secret-tenders-era-over-as-public-contracts-go-online-5086338>

20)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corporate/shipping-logistics/kura-not-to-hire-contractor-for-sh7-6bn-outer-ring-brt-project-5092006>

21) <https://www.theeastafrican.co.ke/tea/business-tech/uganda-sgr-plan-on-track-as-kenya-pursues-china-bond-5089648>

로 규모의 계약에 따라 말라바-캄팔라 간 272km 구간 전철화 공사가 착공됨. 사업 자금은 수출신용기관(ECA)과 8억 달러 규모의 이슬람개발은행(IsDB) 금융을 통해 조달되고 있음.

- 본 케냐-우간다 연계 사업은 케냐 내 SGR 확장 지연과 맞물려 있으며, 이에 따라 케냐 정부는 나이바샤-말라바(475km) 구간의 자금 조달을 위해 첫 중국 팬더본드(Panda bond) 발행을 추진 중임.
- 팬더본드 조달 자금은 나이바샤-키수무-말라바 구간 사업 재개에 활용될 예정으로, 이는 우간다 SGR과의 연계를 통한 철도 물류 효율화와 몸바사-캄팔라 간 운송 비용 절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
- 사업 완료 시, 양국을 잇는 SGR 네트워크는 동아프리카 지역 화물 운송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시키고, 몸바사 항의 환적 허브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역내 무역 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 태양광 전문가,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sup>22)</sup>

- Suswa Solar Pack Corporation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과 마다가스카르 전직 대통령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케냐에서 1억 8천만~2억 3천만 달러 규모의 120MW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케냐는 2030년까지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미 전체 전력의 92%를 재생에너지로 공급 중으로, 이번 사업은 녹색 전환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됨.
- Musa Solar Solutions의 설립자인 맥 알리 레메네(Mc Ale Lemene)가 이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으며, 26년간의 태양광 에너지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규모 청정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고 있음.
- 이 사업은 아프리카가 보유한 방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부각시키며, 각국 지도자들은 지속 가능한 산업화를 위해 대륙 차원의 태양광 및 풍력 자원 협력을 촉구하고 있음.

#### ○ 나이로비 북부 우회도로 확장, 교통 혼잡 해소 위해 내각 승인<sup>23)</sup>

22) <https://businesstoday.co.ke/alee-lemene-solar-guru-tasked-with-delivering-mega-project-in-kenya/>

23) <https://www.capitalfm.co.ke/business/2025/06/cabinet-okays-dualling-of-nairobi-northern-bypass-to-ease-traffic-congestion/>

- 케냐 내각은 만성적인 교통 혼잡 문제 해결과 연결성 강화를 위해, 나이로비 북부 노선을 따라 20.2km 구간의 노던 바이패스를 복선화(dualling)하는 사업을 승인함.
- 해당 사업은 기존 단일 차로를 양방향 2차로의 복선 도로로 확장하고, 총 8곳의 인터체인지, 고가도로, 지하차도 등을 신설할 계획.
- 아울러 보행자 도로 및 자전거 도로 등 비자동차 교통수단(NMT) 인프라와 함께, 배수시설 개선 및 보다 안전한 진입 도로도 포함됨.
- 본 사업은 도로 안전성 향상, 이동 시간 단축, 연료 소비 절감뿐만 아니라 나이로비의 지역 경제 중심지로서의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함.

○ Karen·Ngong 주민들, 철도 사업에 환경 훼손 및 토지권 침해 우려 제기<sup>24)</sup>

- 리루타-응공 노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12.5km 통근 열차 건설 계획에 대해, Karen과 Ngong 지역 주민들이 사전 협의 부족을 이유로 강한 우려를 표함.
- 주민들은 해당 사업이 응공 숲(Ngong Forest) 등 민감한 생태계 내 산림 훼손과 수목 감소 등 환경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함.
- 또한, 주거지역 및 토착 생물 다양성에 대한 영향, 강제 이주 가능성, 토지권 침해 등의 문제도 함께 제기됨.
- 지역 사회는 사전 협의, 환경영향평가(EIA), 정당한 보상 등에 대한 청원 및 법적 대응을 시도했으나,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4 정치 동향**

○ 치솟는 안보 예산, 외면받는 사법부... 거리엔 피 흘리는 시위대<sup>25)</sup>

- 알버트 오즈왕(Albert Ojwang)의 사망 이후 벌어진 “정의 없이 예산 없다(No Justice, No Budget)” 라는 구호 아래의 대규모 시위 속에서, 극적인 예산 회기가 진행되며 국민들의 깊은 환멸을 드러냄.
- 거센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법 및 법 개혁 부문을 희생하면

24) <https://nation.africa/kenya/business/railway-project-raises-environment-land-rights-concerns-for-karen-ngong-residents-5094168#story>

25) [https://www.standardmedia.co.ke/opinion/article/2001521827/security-budget-balloons-while-justice-starves-and-protesters-bleed#google\\_vignette](https://www.standardmedia.co.ke/opinion/article/2001521827/security-budget-balloons-while-justice-starves-and-protesters-bleed#google_vignette)

서 안보 분야에 과도하게 많은 예산을 배정함.

- 이러한 예산 우선순위의 변화는 시민 저항에 대한 억압적 통치 방식과 군사화된 국가 대응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줌.
- 국가 지출이 국민 복지보다 통제 유지에 우선순위를 두는 가운데, 민주주의 제도와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 경찰 폭력에 대한 국민 분노 속, 민간 부문은 평화 촉구<sup>26)</sup>

- 케냐 민간부문 연합회(KEPSA)는 최근 알버트 오즈왕(Albert Ojwang)이 경찰 구금 중 사망한 사건 이후 전국적인 시위를 촉발한 가운데, 정치적 불안과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KEPSA는 평화로운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 집행기관이 법치주의를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생계를 보호할 것을 촉구함.
- 해당 연합회는 지속적인 폭력 사태가 생명과 재산, 경제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긴장을 완화하고 책임 있는 정치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강조함.
- KEPSA는 ‘Mkenya Daima’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국가 통합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평화 증진, 책임성 강화, 청년 참여 확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함.

#### ○ ODM·UDA, 중국 공산당과의 정치 협력 강화<sup>27)</sup>

- 케냐의 주요 정당인 ODM과 UDA는 중국 공산당(CPC)과의 정치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UDA 지도부는 중국을 방문해 CPC의 통치 모델과 정치 교육에 대해 논의함.
- 클레오파스 말라 UDA 사무총장과 가차과 부통령은 중국 공산당 관계자 및 주케냐 중국대사와 회동을 갖고, 정당 역량 강화 및 리더십 훈련 지원 방안을 모색함.

26) <https://www.the-star.co.ke/news/2025-06-18-kepsa-appeals-for-calm-amid-public-outrage-over-police-brutality>

27) <https://nation.africa/kenya/news/politics/odm-uda-strengthen-political-ties-with-china-communist-party-5091618#story>

- 이러한 계획에는 내부 당 조직 강화와 지속성을 목표로 나이로비에 중국 공산당(CPC)식의 리더십 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 중국과의 정치적 연대 심화는 케냐 여당들이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대안적 거버넌스 모델을 모색하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됨.

○ 국가 조직 폭력배 연루 의혹, 증가하는 불안과 정치적 무정부 상태에 대한 새로운 우려를 촉발<sup>28)</sup>

- 시위대를 위협하기 위해 국가 안보 기관과 폭력조직이 공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정치 불안과 무정부 상태로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시위대와 시민단체는 경찰이 시위 중 고용된 폭력배를 비호하거나 공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로 인해 시민을 향한 폭력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함.
-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책무성과 인권 보호, 헌법에 기반한 민주주의 원칙 준수 능력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증대시킴.
-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위가 제지되지 않을 경우,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정당한 시위권을 행사하는 시민들 사이에 두려움을 확산시키며, 케냐의 정치적 안정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함.

○ 킨디키, 가차과에 강력 반박... “정치보다 개발 우선”<sup>29)</sup>

- 키투레 킨디키 내무장관은 리가티 가차과 부통령의 분열적 정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위협과 선동에 의존하고 있다고 직격함.
- 킨디키는 여권 내 권력 다툼에 휘말리지 않고 국가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함.
- 이번 갈등은 가차과 부통령이 루토 대통령이 국가 자원을 이용해 특히 마운트 케냐 지역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됨.
- 케냐 관자(Kenya Kwanza) 연합 내 일부 지도자들 역시 가차과의

28) <https://www.standardmedia.co.ke/national/article/2001522436/state-goons-links-fuel-fresh-fears-of-rising-unrest-political-anarchy/#google.vignette>

29) <https://www.standardmedia.co.ke/politics/article/2001522442/kiniki-hits-back-at-gachaga-reaffirms-commitment-to-development-over-politics/#google.vignette>

발언을 조기 선거운동으로 간주하며, 연합의 통합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함.

- 케냐 시위 사태…서방 외교단, ‘복면 경찰·폭력배 동원’에 강력 경고<sup>30)</sup>
- 미국, 영국, EU 등 서방 외교관들은 케냐 시위 현장에서 복면을 쓴 경찰과 고용된 폭력배들이 시위대를 공격한 데 대해 강하게 규탄하며,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함.
-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과도한 공권력 사용, 특히 Z세대 활동가들에 대한 납치와 폭력 사례가 보고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당국은 관련성 여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정체불명의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 책임 추궁 요구가 더욱 거세짐.
- 시위는 고물가 등 경제적 불만을 배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청년층은 재정 개혁과 생활비 부담 완화를 강력히 요구함.

---

30) <https://www.theeastafrican.co.ke/tea/news/east-africa/kenya-protests-diplomats-warn-against-masked-police-goons-5093890>

## □ 일반 프로젝트 동향 및 센터 운영 현황 보고

### ① 일반 프로젝트 동향

#### ① Nairobi-Mombasa Usahihi Expressway Project <sup>31)</sup>

#####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케냐 국가도로청(KeNHA), Usahihi Expressway Ltd(Everstrong Capital)과 협력
- (도 급 사) 미정 (타당성 조사 승인 이후 조달 절차 진행 예정)
- (사 업 비) 약 KES 4,520억~4,640억 (약 USD 35억~36억)
- (편 징) 국내 연금기금에서 KES 1,290억 조달 목표. 총 사업비 36억 달러 중 나머지는 국제 투자자, 개발금융기관, 민간 자본을 통해 조달 예정.  
→ 민간 투자자 주도(70%) + 정부(30%) 참여 구조

##### ▪ (사업내용)

###### <노선 및 범위>

- 기존 나이로비-몸바사 도로와 병행하는 총연장 440km의 통제접근식 4차선 고속도로(확장 가능)
- 왕복 4~6차선(중앙분리형) 구조로 설계
- 기존 10~12시간 소요되는 주행 시간을 약 4.5시간으로 단축하도록 설계

###### <통행료 및 수익 구조>

- Everstrong이 30년간 양허 운영
- 통행료 수익(특히 대형 화물차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도로 건설 및 운영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

###### <이해관계자 참여>

- 토지 보상을 위해 KES 129억(약 1억 달러) 예산 편성
- 토지 소유주에게 지분 참여 기회 제공, 예상 수익률 약 17.5%
- 지역사회 참여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중점 추진

###### <지속가능성 요소>

- 야생동물 이동 통로 설치 계획
- 전기차(EV) 충전소,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 포함

##### ▪ (추진현황)

- 2023년: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및 세계은행(World Bank)의 지원 하에 타당성 조사 완료
- 2024년 1분기: 케냐 국가도로청(KeNHA),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자격요청서(RFQ) 공고
- 2024년 3분기: 선정된 입찰자들이 제안서 제출 예정 (2025년 1분기 제출 예상)

31) <https://www.constructionkenya.com/12380/usahihi-expressway/>

- 2025년 5월: 타당성 조사 결과를 KeNHA에 제출, PPP 유닛의 검토 대기 중
- 재무종결 목표: 2025년 말까지, PPP 승인 및 자금 조달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착공 시점: 2026년 초 예정, 총 4년간의 공사 기간 계획

○ **(주요상황)** 현지 연금기금 및 시중은행을 통한 1단계 자금 조달 캠페인 개시, 총 KES 1,290억 확보 목표. 중국 도로교량공사(CRBC) 및 프랑스 Bouygues사, 사전심사 통과 주요 입찰자 명단에 포함. 토지 보상 절차 진행 중, Kibwezi 및 Sultan Hamud 지역에서 보상 분쟁 사례 보고. 혁신적 PPP 구조 도입,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지분으로 전환해 참여 가능한 포용적 투자모델 제시. 환경영향평가(EIA) 승인 완료, 2024년 5월 환경관리청(NEMA) 으로부터 공식 허가 취득. 통행료 부과에 반대하는 지역 상인들의 반발, 케냐 도로청(KeNHA)은 오토바이 및 대중교통에 대해 면제 조치 약속.

## ② Talanta Sports Stadium (Sports City)<sup>32)</sup>

###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Government of Kenya (Ministry of Sports), PPP 모델 기반의 공동 개발
- (도 급 사) 중국 도로교량공사(CRBC), 중국교통건설공사(CCCC) 산하 자회사
- (사 업 비) KES 45 - 44.7 billion (USD 350 - 250 million)
- (편 당) 시공사(CRBC) 자금 조달 중심, 일부 정부 재정 지원 포함, KES 440억 규모의 국채 발행안도 제안됨
- (사업내용)
  - 수용 규모 및 설계: 총 6만 석 규모의 축구·럭비 전용 경기장, 천연잔디 필드 및 인근에 육상 경기장 및 훈련장 포함
  - 인프라 구성: 전 좌석 지붕 설치, 지역 문화 모티프를 반영한 외관 디자인, 케냐 국방군(KDF) 공병단이 감독
  - 용도 및 목적: 2027 아프리카 네이션스컵(AfCON) 주경기장으로 활용 예정 (공동개최국: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개막전 및 결승전 개최를 목표로 설계
- (추진현황)
  - 2024년 3월: 대통령 주재로 기공식 개최, CRBC(중국 도로교량공사) 시공 시작
  - 2025년 5월: 공정률 약 37% 달성, 완공 시점은 2025년 12월에서 2026년 2월로 연기
  - 자원 조달: 전체 계획된 자금 중 약 5%만 집행, 국고는 제안된 KES 440억 규모의 국채에 대해 보증을 거부, 투자자 중심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 제기
  - 감독: 국방부 및 CRBC 측은 예산 초과 없음을 확인, 감사 예정 중이며, 국고의 참여 여부는 검토 중

- (주요상황) 전체 공정 약 37% 진행 중, 구조물 공사는 현재 조립 단계(interlocking stage). 2026년 2월 완공 목표, 2027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AFCON) 일정에 맞춘 준공 일정 조정. 국채 발행 지연과 국고 보증 미확보 등으로 재정 조달에 어려움,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 및 일정 차질 우려. 거버넌스 투명성 확보: 국방부 및 CRBC, 예산 엄수 및 정기 감사를 통해 투명성 보장 의지 강조

32) <https://nation.africa/kenya/sports/talanta-city-sports-stadium-will-cost-sh44-7bn-to-build-4998540>

### ③ Outer Ring Road BRT (Line 5) - Nairobi<sup>33)</sup>

####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교통부를 통한 케냐 도시도로청(KURA)
- (도 급 사) 한국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지침에 따라 한국 소재 기업에 한정된 입찰을 통해 한국 기업이 수행 예정
- (사 업 비) KES 7.3 - 7.6 billion (USD 56 - 60 million),
- (편 당) 전액 한국수출입은행(EDCF)의 차관으로 조달
- (사업내용)
  - 노선 및 특징: 아우터 링 로드(Outer Ring Road)를 따라 총 10.4~10.5km 구간에 걸쳐 간선급행버스(BRT) 전용 차로 조성. 동부 우회도로(Taj Mall)에서 티카 고속도로(Allsops)까지 연결
  - 토목 공사: BRT 정류장 13개소, 강 위 교량 3개, 고가도로 2개, 보행자 육교, 버스 차고지(1,365m<sup>2</sup>), 가로등, 배수 시설, 조경, 교통 관리 시스템 설치 포함
  - 기술 및 설비: CCTV 감시 시스템, 차량 추적 장치, 요금 징수 시스템, 전기버스(EV) 충전 인프라 포함
- (추진현황)
  - 2024년 9월: 입찰 공고 발표, EDCF 지침에 따라 한국 기업에 한정
  - 공공 참여: 2024년 말, 카무쿤지(Kamukunji), 엠바카시(Embakasi), 크와레(Kware) 지역에서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 개최
  - 2025년 초: 76억 케냐 실링 차관 집행 확정, 입찰 평가 진행 중, 향후 수개월 내 착공 준비(자재·장비 동원 등) 예정

- (주요상황) 760억 KES 규모의 EDCF 차관 확정으로 사업 실행 가능성 입증. 경쟁입찰이 한국 기업에 한해 개시되었으며, 높은 관심이 예상. 2025년 중반 착공 예정이며, 공사 기간은 2년으로 계획. 전기차 충전소, CCTV, 차량 모니터링 시스템, 보행자 편의 시설 등 포함.

33) [https://kura.go.ke/ova\\_doc/expect-bus-rapid-transit-brt-on-outer-ring-road-the-next-two-years/](https://kura.go.ke/ova_doc/expect-bus-rapid-transit-brt-on-outer-ring-road-the-next-two-years/)

#### ④ Suswa Solar Park (aka Bavinci Africa Solar PV Project)<sup>34)</sup>

#####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케냐 국가 전력망 전력구매계약(PPA) 체계 하에 운영되는 Suswa Solar Pack Corporation
- (도 급 사) 미정
- (사 업 비) USD 180-230 million (KES 26 billion)
- (편 당) 한국수출입은행(EDCF)과 민간파트너의 공동자금 및 탄소배출권 수익
- (사업내용)
  - 용량 및 단계적 개발: 총 120MW 규모로, 1단계에서는 70MW를 우선 공급하고 이후 50MW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모노크리스탈린(단결정) 태양광 패널과 스트링 인버터를 사용
  - 전력망 연결: 인근 변전소까지 10km 길이의 중전압(33kV) 송전선을 통해 연계되며, KPLC(케냐 전력공사)의 연계 요건을 준수
  - 입지: 카지아도 카운티 수스와(Suswa) 지역 내 약 323.8헥타르 부지에 위치하며, 일일 평균 5~6시간의 고일사량 지역
  - 설계 기준 및 환경 고려: 국제 기준(IEC, IEEE)에 따라 개발되며, 환경사회영향평가(ESIA) 요건을 충족하고, 생태계 교란을 최소화하며, 접지, 낙뢰 보호, 안전 관리 대책을 포함
- (추진현황)
  - 허가 및 환경영향평가(ESIA): 모든 필수 환경 승인 및 전력망 연계 허가 완료, 주요 엔지니어링 문서도 발간됨
  - 입찰 및 시공사 선정: EPC(설계·조달·시공) 입찰 절차 진행 중이며, 2025년 하반기 착공 전 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예정
  - 자원 조달: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 보증 확정, 탄소배출권 기반 자금 및 민간 지분 투자 통합 진행 중
  - 향후 계획: 시공사 최종 확정, 자금 조달 마무리, 현장 투입 준비 후 2026년 본격 착공 예정
- (주요상황) 총 사업비는 미화 1억 8천만~2억 3천만 달러로 설정되었으며, 한국수출입은행과의 협력으로 자금 조달에 탄력이 붙음. 70MW 규모의 1단계 발전소 착공 후, 전체 120MW 용량으로 확장 예정. 전기 배선도, 송전선 배치, 안전 절차, 전력망 연계 세부사항 등 기술 설계 확정. 환경사회영향평가(ESIA) 완료되었으며, 발전소는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됨.

34) <https://www.gdc.co.ke/suswa/>

## ⑤ Bugesera International Airport<sup>35)</sup>

###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 르완다 민간항공청, 르완다 공항공사
- (도 급 사) 2019년까지는 모타-엔질(Mota-Engil)이 주도했으며, 이후 카타르항공이 60% 지분을 인수한 컨소시엄이 현재 공사를 총괄
- (사 업 비) USD 2 billion
- (편 당) 르완다 정부의 예산 배정(2025/26 회계연도 기준 6,990억 RWF),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으로부터의 차관, 카타르항공을 통한 민간자본을 통한 조달
- (사업내용)
  - 13만㎡ 규모의 여객터미널에는 체크인 카운터 22개, 탑승 게이트 10개, 활주로 2개, 연간 15만 톤 처리 능력을 갖춘 화물터미널 포함.
  - 수용 능력: 1단계는 연간 약 700만 명의 여객을 처리하며, 2032년까지 2단계 확장을 통해 1,400만 명으로 증가할 예정
  - 전략적 역할: 키갈리 공항을 대체하고, 지역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환승 수요 유치 및 르완다의 국제행사 유치, 관광·무역 활성화 목표를 뒷받침하도록 설계
- (추진현황)
  - 공사 진척도: IGIHE 보도에 따르면 주요 공사는 약 25~30% 완료
  - 예산 배정: 르완다 정부는 2025/26 회계연도 예산에 6,990억 RWF (약 4억 9,900만 달러)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 동력을 유지하고 자재 지연 문제에 대응할 예정
  - 일정 업데이트: 자재 수급 문제 및 설계 변경으로 인해 개항 시점이 2027~2028년으로 연기됨
  - 2단계 및 추가 차관: 2단계 사업 자금 조달 계획이 진행 중이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으로부터 미화 2억 달러 규모의 지원 가능성과 기타 파트너들과의 협력도 검토되고 있음.

- (주요상황) 2025/26 회계연도 예산에 6,990억 RWF (약 4억 9,900만 달러) 배정, 공사 지속 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 2019년 카타르항공이 60% 지분을 인수하며, 설계 변경 및 확장 계획 본격화. 지연에도 불구하고 단계적 추진 지속하여 활주로, 여객터미널, 화물시설 등이 점진적으로 건설됨. 동아프리카 연결성 강화, 항공 수용력 확대, 경제 성장 견인을 위한 르완다의 대표적인 초대형 프로젝트로 자리매김.

## ② 협력센터 운영 보고

- 해당사항 없음

35) <https://centreforaviation.com/data/profiles/newairports/kigali-bugesera-international-airport>